

제 78 호

제 7 부활 주일

예수승천 대축일

1974. 5.26.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전화 ㉠ 3498

【강론】

홍보 주일

박창신 신부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 지상에서 당신의 임무를 마치고 우리의 시야에서 떠나셨음을 축하하는 예수승천 축일이며 홍보주일입니다. 우리는 1967년 5월 7일 홍보주일이 생기기때 여러번 홍보주일을 지내 왔읍니다. 당신의 구원사업을 완성하고 승천하시면서 기쁜 소식의 전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항상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의 복음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몸을 지닌 우리들은 매 순간 대인 관계의 표시를 통해 상호 의사 전달 뿐 아니라 인격성숙과 참된 인간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영위합니다.

현대의 발달된 메스콤은 우리 본성의 요구를 더욱 풍부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불량소년의 3대 원인중의 하나도, 어느 한 개인에 대한 폭발적인 적대 행위도, 나쁜 풍조의 흐름도 메스콤의 역기능이라 하면 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세계를 가깝게 이룰 수 있는 것도 메스콤의 덕입니다. 그래서 메스콤은 하느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인식하고 인간성의 제발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메스콤의 전달과정을 생각해 봄으로서 구호에만 그쳤던 홍보주일을 반성해 봅시다. 그의 전달과정은 2단계로 흐릅니다. 메스미디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선택과 관심도 때문에 집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달의 첫단계로서 먼저 의견 지도자에게 메스콤의 진리가 전달되고 둘째로 의견지도자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더욱 풍부한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둘째 단계의 효과는 첫째 단계보다 더욱 많은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두가지 흐름을 볼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의견 지도자가 되어야 겠읍니다. 어느 메스콤을 대할때 마다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비판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것을 각자가 접촉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때 올바른 메스콤의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지도자가 되기위한 노력은 전 신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겠읍니다. 교회 판매소에서 성물에만 관심을 쏟는 보기 싫은 광경과 교회 서적과 시보를 외면한 신자들이 과연 현대의 발달한 메스콤의 전달방법을 순화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좋은 의견 전달자가 될 수 없고 또 세상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명에 순종했다고 할 수 없읍니다.

(중앙성당 보좌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갈릴레아 사람들,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 보고 있느냐? 그 분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모압으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1;1-11, 성서 P.264)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였다.

□**창계송**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 누리 크웁신 임금이다◎

□**제 2 독서** (에페소;17-23, 성서 P.438)

하늘 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세말까지 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루가24;46~53, 성서 P.201)

그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셨다.

□**승천 감사송**

□**신자들의 기도**

1. 메스콤을 통하여 당신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신자들 각 가정에 가톨릭출판물이 적어도 한부 이상씩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소서◎주여...

2. 주여, 가톨릭 메스콤 종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

3. 주여, 주보 「숲정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제는 전 교구적인 주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당신 백성들의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당신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널리 퍼게 하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나는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 알렐루야.

* 숲정이 산책 *



기도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때; 5월 19일(일) 오후 2시반 - 5

곳; 판문점 자유의 다리 앞

(임진각 광장)

-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이복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
- ▶...와 회생을 바치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
- ▶...어 주소서”

블비가 대지를 적시는 임진각 광장을 우산을 받쳐 쓴 전국 각지의 신도들의 기도소리와 성가로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 교황대사와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들의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공동미사가 역세계 쏟아지는 빗속에서 봉헌되고 있다. 그렇게 웃을 적셔도 신도들은 움직임 줄을 모른다.

강론 사제(정하권 신부)는 24년간이나 서로 잘라져 살아온 민족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며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새로운 자세를 촉구하였다.

승공교육의 일의 담당해야

①지금이야말로 교회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승공(勝共)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②현실을 무시한 미래는 무언가 잘못 된일이다.

③인류의 공동선(共同善)을 의면한 지나친 물질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재화는 어느 특정인이나 몇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선진국은 후진국에 대한 의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④교회는 한국의 사회정의 실현을 외치고 이에 앞장 서야 한다. 경제개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주어야 할을 물론, 교회 자체내의 반성이 따라야 된다. 한국 가톨릭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교회인가? 본당이나 교구의 예산이 교회 운영에만 급급하는 현실을 탈피하고 없는 자들을 위한 예산도 책정해야 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시오.”(요한 13장)하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상기시킨 강론사제는 “어떤 형제나 자

매가 헐벗고 그날에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 2장)라고 경고하시며 강론을 끝냈다. 빗속에서 봉헌이 끝나고 성찬식도 마쳤다.

갈길이 바쁜 우리 교구 기도단은 다시 버스에 올랐다. 자유의 다리를, 철도 중단점을 뒤로 하고 빗속을 달려 전주에 오니 밤11시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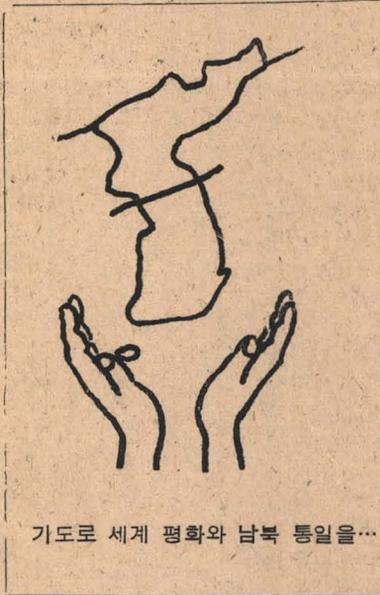
단결된 점

아침 8시부터 밤11시까지 무려 12시간을 버스에 시달리며 기도회에 참가한 전주교구 신도들은 전주에서만도 750여명이다. 곳곳에 야유회들이 한창인지라 버스 한 대 구하기가 어려운 참에 15대의 버스를 마련해내고, 2,000여원의 경비를 써가며 모여진 이 힘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폴레옹의 사전에만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뜻만 있다면 우리의 사전에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다.

빗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수만의 신도들이 바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리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유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교향 여러분의 집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북 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 추억의 집 ☆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③ 6059



보고 듣고 전하자

김 마리아 수녀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 메스컴의 시대라 한다. 이 홍보기관의 수단은 출판, 영화, 방송, 텔레비전, 그의 일반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 수단으로 일류의 진보가 가져온 발명의 이기로서 시대의 필요와 또 상황에 요구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이 대중 문화적 양상을 띠고 양적 침투를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이며, 양자는 1960년대에 들어와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대중의 생활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급격히 사회적 충격을 가증시켰다고 보겠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 연극, 영화, 레코드 등 각양 각색의 메스메디아를 접촉한다. 뉴스, 논평 정보뿐 아니라 풍부한 교양을 위해서도 점점 더 광범하게 이것에 의존한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가 요하는 것으로 청취자나 독자, 혹은 관람자들이 자신의 비판적 기능을 잠재위버리고 그것을 긴장 해소와 오락을 목적으로 하여 무분별하게 진실에서 이탈된다면 우리의 본연의 목적인 인간의 품위와 지성의 산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적어도 성교회에서 정한 이 메스컴의 날의 의의로써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아직 그분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한14장6절) 그리스도를 매일 현실속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결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데 뜻이 있다고 본다.

생각할 자유와 알고 알릴 권리는 병행된다. (요한23세 「지상의 평화」) 그럼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성서이다. 이것은 인간적 정욕과 지성적 편견에서 해방되는 자유요, 실패와 패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요, 오로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며, 인간에 대하여 하시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이다.

역사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업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 함께 보고 듣고 전하자」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요심이 (45) 김병오

이책은 누나가 읽는 연애소설... 저책은 형이 읽는 주간잡지이고...

아빠 경향잡지사께 돈 좀 주쇼

돈 없어!

그럼 아무책이라도 읽겠어요 아빠

복순씨 난 요심이 그런책 읽으면 안되! 당신을 사랑해요

돈 가져 가라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성경, 성가, 전전 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이주간의 성경

- 27<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30(목) 독서 (사도행전 22,30.23:6-11, 성서 P.316)
- 독서 (사도행전 19:1-8, 성서 P. 311)
- 복음 (요 한 16:29-33, 성서 P.249)
- 28<화> 독서 (사도행전 20:17-27, 성서 P.315) 31(금) 복음 (요 한 17:20-26, 성서 P.251)
- 복음 (요 한 17:1-11, 성서 P. 250)
- 29<수> 서울 주교좌 축성 6.1(토) 아칭 성 유스며노 순교 기념
- 독서 (사도행전 20:28-38, 성서 P.316) 독서 (고린토 전 1:18-25 성서 P.372)
- 복음 (요 한 17:11b-19, 성서 P. 250) 복음 (마태오 5:13-19 성서 P.8)

학생복 전문

금성양복점

교우 특별 우대

김경조(루이스)
중앙극장 앞<전주시 중앙동>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 사

● 동문 네거리(농남동 1가 17)
전화 5986
임도민고(정원)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찜쌀떡 준비!

프랑스 제과 *임금님 찻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5011 찻집 5013
김원준(야고버)

제4지구 6개 분당 소식

※ 전제 소식 ※

1. 제3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5월 27~30일; 가톨릭센터) 목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2. 가톨릭 학생회 프로그램 연구회 (6월 2일<일> 오후 2시 해성학교 종교감설)
 - ① 가톨릭 학생회의 건장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월례적인 6월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② 학생회 각팀의 지도자는 물론 Cell이나 L.M의 간부 학생 및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3. 전주 시내 6개 분당 친선 체육대회 (6월 9일<일>; 해성학교)
 4. 4지구 사회분과 회의 소집
 - 장소; 덕진 성당 사제관 일시; 6월 4일(화) 오후 8시
 - 안건; 4지구 체육대회 위원장: 송정원 지도신부: 김종택
- ☆ 각 분당 사회부장, 차장님들의 참석 바랍니다. (각 분당 활동한 경비 지참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신부 박창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분당 주보 축일미사 및 L.M. 옥외행사
 - 장소: 화산동 아파트 뒷산에 집합
 - 시간: 오전 9시반 (도시락 지참)
 - 미사: 현지에서 합니다.
 2. 견진성사 및 교리
 - 견진성사: 6월 2일 (희망자는 사무실에 등록)
 - 견진교리: 27(월) 밤 8시 시작(참석자는 차고 면제)
 3. 사도회 월례회 (1(토) 밤 8시 개최)
 4. 성모의 밤 행사 (목주, 초, 화분 봉헌 지참)
 - 29(수) 밤 8시; 주일학교 학생
 - 31(금) 밤 8시; 신자전체
 5. 전자 들겐 특별 헌금 (누계 296,907원)
 - 만원; 기도회 참석자 일등(어머니 합창단의 노고에 감사) 3,907원; 강윤궁(성심여중 1년)
- ☆ 어린이 정성에 감사합니다. 위 양은 국민학교 6년간의 저축한 돈을 가루하게 봉헌 했습니다.
6. 예비자 교리시간
 - ① 일반; 주일 공식 미사 후, 화,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 ② 학생; 주일 오전 9시, 수, 토요일 (오후 7시반)
 - ③ 노인; 주일 공식미사 후, 화요일 (오전 10시)
- 지난 주일 봉헌금 40,340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석호

1.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매일 밤 미사후 공동 성월과 기도바침)
 2. 교무금 완납 요망 (약속하신 금액 속히 이행 합시다.)
 3. 성모의 밤 행사 (오늘 밤미사; 양초지참)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5. 성프란치스코 제속 전주 방지거회 월례회 (1(토); 중앙성당)
 6. 지난주 성미 1말 3되 누계 281말 1되
 - 성미 결산보고 (25일 현재)
 - 수입부 ① 성미 274말 4되 현금화 306,855원
 - ② 성미를 현금으로 낸 금액 10,394원
 - 계 317,249원
 - 지출부 ① 50만원 3년 재적금 불입 (5월까지) 164,500원
 - ② 장부 말 1,400원 계 165,900원
- 잔액; 151,349원 (은행예금) 성미 재고 6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79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L.M. 옥외행사 (오늘; 상관성당) 활동 및 협조단원들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미사후)
 3. 4지구 친선 체육대회 (9(일); 해성학교) 적극 협력과 참석을 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다음주일 없음 (L.M. 옥외 행사로 인해)
 5. 제3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27(월)부터)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 신용조합 이사회 (27(월) 밤 8시)
 7. 신용조합 월례회 (29(수) 밤 8시반)
 8.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성사보세움 (성신장림 대축일) 한국 교회법; 불 관공성사는 성신 장림 주일 후 토요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속히 보시도록 권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002원
 체육대회 회자금 4,26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제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3.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 (분당과 공소)
 - 장소; 왕정 공소 앞 내천 미사: 11시
 -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예비자 등록 (교우분들의 협조 요망)
 5. 성모의 밤 행사 (31(금) 밤 8시)
 -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성당 신축기금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 5만원: 김영호(중노 2가; 아오스딩) 4만원; 최순자(남노송동; 마리아) 천원; 중노 1가; 안나) 계 91,000원 누계 1,374,922원
- 지난 주 신축성미 4말. 누계 171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06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L.M. 옥외행사 (상관 성당; 오늘)
 2. 방지거 삼회 및 클라라 형제회 월례회 (상관; 오늘)
 3. 주일학교 일일교장 (조지영 선생님)
 4. 첫 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4시)
 5. 미사시간 변경 (다음주 만)
 - 수요일 아침미사만 있습니다. (저녁미사없음)
 6.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 저녁, 수요일 오후 3시 및 저녁 미사후)
 7. 성모의 밤 행사 (31(금) 밤 8시; 목주, 초지참)
 8. 자유의 다리 행사 (참가명 411명 사도임원 및 직원 454명)
 - 총수입 616,500원 총지출 558,540원
 - 잔액 57,960원 (주일금 입금) 버스운임 423,000원
 - (1대당 47,000원) 기사 및 정비사 사례 33,000원 (1일 당 3,000원) 고속도로 왕복료 67,500원 (1대당 7,500원) 기사 식대 19,500 (30명; 3회분) 에스코드 사례 4,000원 기타 잡비 11,54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34,041원
 기타 주일금 57,960원 계 92,001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중업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전 조합원 참석을 바라며 참석자에 한해서 (조합원) 복권 1매씩 드립니다. 단 불참시엔 대부 받는데 1할 공제 되오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2. 푸른 양지회 임원 개선
 - 회장; 이병희(스페파노) 부회장; 조태훈(알벨도)
 3.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흥보주일 (특별헌금 있음)
 5. 성모의 밤 행사 (28(월) 오후 8시 미사후)
 - 꽃다발을 12시까지 많이 내주시길 것. 지참물; 초, 목주
- 애령회 기금 조성 1말 4되 1홉
 지난 주일 봉헌금 4,040원 감사합니다